

부모 리더십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윤지영*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효과적인 부모역할수행을 통한 부모의 행복과 나아가 가정 및 사회의 다면적 복지 증진을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부모 리더십의 개념을 탐색하여, 부모 리더십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맞벌이 부모를 대상으로 유아기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리더십 행동에 대하여 부모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 리더십의 척도 개발은 문헌 연구, 포커스 그룹, 심층면접 그리고 설문조사와 같은 연역적·귀납적 두 가지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측정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먼저 국내외의 문헌 고찰을 통해 부모 리더십 척도의 3차원과 9영역을 추출하고 개념화하였으며, 포커스 그룹과 심층면접을 통한 자료 분석과 국내외의 부모양육행동과 관련된 척도의 문헌을 고찰한 내용을 토대로 110개의 예비 문항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110문항을 가지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여 문항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며, 그 결과 80문항이 선정되었다.

예비조사는 서울·경기 지역에 사는 만 3세~5세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 225명을 대상으로 본 척도의 예비문항인 80문항을 조사하였으며, 일차적으로 각 문항과 영역 총점 간 상관 및 신뢰도를 고려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8문항을 제거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 리더십 척도는 3차원 7영역으로 모두 32문항으로 정리되었고, 각각의 요인에 속한 문항들이 모두 요인부하량 .4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분산 비율은 50.96%였다.

또한 본 조사는 서울·경기 지역에 사는 만 3세~5세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 760명을 대상으로 먼저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전체 신뢰도는 .940이며, 차원별로는 '역할 지향적' .829, '관계 지향적' .906, '과업 지향적' .885로 나타나서 부모 리더십 척도의 내적 일관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AMOS 5.0을 활용하여 32문항의 3차원 7영역의 구조를 실제 데이터를 통하여 검증한 결과 구인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주제어 : 부모 리더십, 맞벌이 부부, 리더십

논문 제출일: 2009. 02. 10

최종 심사일: 2009. 03. 24

* 경기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주임교수.

Corresponding Author : Yoon, Ji-Young, The Training Schools for the Daycare Teachers, Kyonggi University, 2,71-KA Chungjung-ro, Seodaemoon-gu, Seoul, Korea 120-702, E-mail: powerlife@ dreamwiz.com

I. 서론

지식정보화 시대의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가족의 형태와 구조, 기능과 역할이 변화되고, 가족의 욕구수준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가족의 구조는 전통적인 수직 구조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어 가족 내의 모든 역할 차원에 대해 부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맞벌이 부모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권위적인 관계에서 탈피한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이해가 강조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부모의 역할이 신체적, 심리적 보호 및 적절한 훈육, 교육자의 역할 등 기본적인 부모의 역할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게 되었고, 사회와 가족 환경의 변화에서 부모 역할의 실패는 가족 간 갈등 증가 및 심리적 소외 증대, 공동체 의식의 상실, 청소년 비행의 증가 등의 커다란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김혜신·김경신, 2003; 강기정·박혜성·계선자, 2005; 최정혜, 2006; Hawkins & Roberts, 1992, Windle & Dumenci, 1997).

무엇보다 사회변화에 따라 대부분의 부모가 전업이든 시간제이든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필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양육은 전업주부를 전제로 하는 기존의 자녀양육 방식과 질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의 변화가 필요하다(함인회, 2001).

그러나 기존의 부모역할이나 양육행동의 개념으로는 가정 경영자로서의 영향력과 역량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정립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것은 가정이라는 조직에서 리더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새로운 개념인 ‘부모 리더십(parent leadership)’으로 설명될 수 있다(이문용, 1988; 이소희·마미정, 2006; 채경선, 2006).

그동안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주로 조직행동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나, 가정도 가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의사결정 등을 통해 가정의 목표와 비전을 실현하는 하나의 조직체계란 점에서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물론 가정의 특성상 사회조직과 본질적으로 차별되는 측면은 간과할 수 없지만, 오히려 가정환경이 조직 환경보다 헤드십(headship)이 아닌 리더십(leadership)의 관계가 강조되어야 하는 인간관계의 구성인 만큼 더욱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강형철 외, 2006).

부모 리더십은 부모가 자녀의 출생으로 인해 주어진 지위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으로서의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부모임을 선택하고 또한 스스로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 가족과 자녀의 변환자(Change Maker)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는 자녀를 가이드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조직화하고, 강화하고, 양육하는 활동을 통해 (Gallbraith, 2000), 리더십을 발휘한다.

따라서 부모 리더십이란 “자녀로 하여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부모 리더십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관계 속에서 자녀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이며, 또한 자녀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자녀의 잠재능력이 발달하도록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관리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변동에 따라 대두된 부모 리더십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모 리더십을 측정하는 도구는 대부분 경영·조직체계를 기반으로 개발된 변혁적 리더십의 척도를 가정 및 부모 리더십에 적용한 것이어서, 가정이라는 고유한 조직 내에서의 부모 리더십의 개념을 정립하고 측정하는 연구는 현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박미석·김경아, 2005; 이소희·마미정, 2006; 채경선, 2006; Gallbraith, 2000; Galbraith & Schvaneveldt, 2005).

또한 기존에 개발된 부모양육행동에 대한 척도들(부모양육태도, 부모역할, 부모-자녀 관계 등 포함)은 대부분 외국의 도구나 차원을 그대로 혹은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현실과 발달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김정아, 1990; 박영애, 1995; 문경주·오경자, 2002), 최근에 개발된 도구들은 가정에서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아버지 양육에 대한 특성을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있다(현미숙, 2004; 김은정 외, 2006).

무엇보다 변화된 가족 환경에서 부모 역할에 대한 부부 공평성의 부분,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자녀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을 포함하여, 자녀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양육행동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맞벌이 부모의 일상적인 양육 상황에서 긍정적이고 다양한 부모행동을 예측하거나, 유아기 자녀의 발달단계와 가족의 형태에 따라 요구되는 특징적인 양육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부모 리더십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모든 부모에게 적절하고 의미 있는 리더십의 행동범주를 찾아내기 위해 가정에서 부모-자녀의 상호관계에서 발휘되는 리더십의 영역들은 어떤 구체적인 성과보다 양육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부모 리더십은 부모 역할의 인지 과정, 부모-자녀 간의 관계 형성, 과제 효과성 등의 3가지의 광범위한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것은 Yukl(1999)의 과제지향 행동, 관계지향 행동, 변화지향 행동의 3가지 차원의 내용과 Graen & Uhl-Bien(1995)의 리더 중심, 관계 중심, 추종자 중심의 3가지 차원의 모형을 근거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 리더십의 행동범주를 부모의 입장에서 새롭게 명명하여, ‘역할 지향적(role oriented),

‘관계 지향적(relation oriented)’, ‘과업 지향적(task oriented)’으로 구성하였다. 이 3가지 차원은 부모의 양육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통합된 부모 리더십의 행동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리더십 이론 중에서 강조되고 있는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셀프 리더십(self leadership)과 수퍼 리더십(super leadership),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 등은 리더가 역할 모델이 되어 구성원들을 돕고, 구성원의 성장 욕구에 관심을 가지며, 리더와 구성원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 이론들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 리더십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그러나 부모 리더십 연구가 대부분 변혁적 리더십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조직 내에서 성과를 지향하는 변혁적 리더십의 내용만으로는 부모 리더십의 내용을 파악하기에 부족하다(이소희·마미정, 2006; 채경선, 2006; 박미석·김경아, 2005; Galbraith, 2000). 변혁적 리더십은 성장에 대한 기본적 동기의 부분에서 조직의 성공과 변화를 강조하는 반면에, 수퍼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은 구성원을 중심으로 한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구성원의 성장과 성공을 지향한다. 또한 변혁적 리더십에서는 변화를 이끌어 가는 주체가 여전히 리더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셀프 리더십과 수퍼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에서는 리더와 구성원 모두의 자율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따라서 변혁적 리더십, 셀프 리더십과 수퍼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은 공통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부모 리더십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이론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 이론(변혁적 리더십, 셀프 리더십과 수퍼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과 부모양육행동(부모양육태도, 부모역할, 부모-자녀 관계 등 포함)과 관련된 광범위한 국내외 연구를 고찰하여, 부모 리더십 척도의 3가지 차원과 9개의 하위영역을 설정하였고, 부모양육행동을 리더십 행동과 연결하여 선행 연구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요 개념들을 부모 리더십의 행동특성으로 분류하고 정리하였다.

1. 역할 지향적 차원

기존의 부모양육행동과 리더십과 관련된 연구들을 통해서 고찰된 부모의 ‘역할 지향적’ 차원에는 자아정체성, 양육 신념, 모델링 등의 개념이 포함되며, 본 연구에서 ‘역할 지향적’ 수준에 ‘부모 정체성(parent identity)’, ‘양육 비전(parenting vision)’, ‘모델링(modeling)’의 3가

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부모 정체성은 “부모 역할에 대한 자기 인식과 부모로서 리더십 발휘에 대한 자기 확신”으로 정의하며, 자기 경영과 환경 경영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Stryker & Serpe, 1982; Webster-Stratton, 1988; Bass, 1990; Manz & Sims, 1991; Johnson, 2000). 둘째, 양육 비전은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와 목표가 내재화 된 것”으로 정의하며, 양육목표(Levine, 1974; Dix, 1992; Hogan, 1993; Galbraith, 2000)와 도덕적 가치(McClelland, 1975; Bass, 1990)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모델링은 “양육 비전에 대해 스스로 개인적 몰입을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정의하며, 신뢰형성(Ainsworth et al., 1978; Bowlby, 1969; Main, 1983)과 카리스마(Manz & Sims, 1991; Bass, 1985)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2. 관계 지향적 차원

기존의 부모양육행동과 리더십과 관련된 연구들을 통해서 고찰된 부모의 ‘관계 지향적’ 차원에는 개별적 고려, 의사소통, 격려 등의 개념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계 지향적’ 수준은 ‘개인적 배려(individual attention)’, ‘의사소통(communication)’, ‘영감적 격려(inspirational encouragement)’의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개인적 배려는 “자녀의 욕구와 성장에 대하여 민감하게 지각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과정”으로 개별화(Bass, 1985; Sims, 1997), 민감성과 반응성(Pease, 1970, Holden & Ritchie, 1988; Ainsworth, Bell, & Stayton, 1971; De-Wolff & Van IJzendoorn, 1997)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의사소통은 “자녀를 수용적으로 공감하고 존중하는 의사전달의 과정”으로서 경청과 표현(Satir, 1983; Spears, 1995; Barnes & Olson, 1982; Bass, 1985)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영감적 격려는 “격려를 통해 자녀의 의욕과 열정을 고취시키는 과정”으로서 정신적 보상(Bandura & Walter, 1963; Manz & Sims, 1991)과 격려(Rafferty & Griffin, 2004; Shamir et al., 1993)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3. 과업 지향적 차원

기존의 부모양육행동과 리더십과 관련된 연구들을 통해서 고찰된 부모의 ‘과업 지향적’ 차

원에는 목표 설정, 지적자극, 임파워링 등의 개념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과제 지향적’ 수준은 ‘목표설정(setting goals)’, ‘지적자극(intellectual simulation)’, ‘임파워링(empowering)’의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목표설정은 “자녀의 성숙 수준에 따라서 과제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수행할 기준을 세우도록 실제적인 도전 의식을 주는 과정”으로 정의하며, 방향설정(Conger & Kanungo, 1988; House & Howell, 1992; Manz & Sims, 1991; Ainworth et al., 1978; Stoppard, 1991)과 시간관리(Bandura & Schunk, 1981)의 개념이 포함된다. 둘째, 지적 자극은 “자녀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도전하도록 자녀의 잠재력을 촉진시키는 과정”으로 정의되며, 창의성(Podsakoff et al., 1990; Baumrind, 1978; Matas, Arend, & Sroufe, 1978; Bornstein, 1989)과 혁신성(Bass, 1985; Popper & Mayseless, 2002)의 개념이 포함된다. 임파워링은 “자녀가 목표에 도달하는데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으로서 권한부여와 시너지(Brown & Lawler, 1995; Dewey, 1944, 1990)와 환경조성의 개념을 포함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효과적인 부모역할수행을 통한 부모의 행복과 나아가 가정 및 사회의 다면적 복지 증진을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부모 리더십의 개념을 탐색하여, 부모 리더십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맞벌이 부모를 대상으로 유아기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리더십 행동에 대하여 부모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1. 부모 리더십 척도의 개념적 구인은 어떠한가?

연구 2. 부모 리더십 척도의 구성요인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이론적 구인 및 문항의 개발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 이론(변혁적 리더십, 셀프 리더십과 수퍼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과

부모양육행동(부모양육태도, 부모역할, 부모-자녀 관계 등 포함)과 관련된 광범위한 국내외 연구를 고찰하여, 부모 리더십 척도의 3가지 차원과 9개의 하위영역을 추출하고 개념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역할 지향적’, ‘관계 지향적’, ‘과업 지향적’ 차원으로 구성되며, 역할 지향적 차원에는 ‘부모 정체성’, ‘양육비전’, ‘모델링’의 요인이 포함되고, 관계 지향적 차원에는 ‘개인적 배려’, ‘의사소통’, ‘영감적 격려’의 요인이 포함되며, 과업 지향적 차원에는 ‘목표 설정’, ‘지적자극’, ‘임파워링’의 요인이 포함된다.

또한 문항 개발을 위하여 부모 리더십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위해 포커스 그룹 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활용하였으며, 생산적인 토론을 이끌 수 있는 참여자를 <표 1>과 같이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만 3세~5세의 맞벌이 부모 5~6명씩 4그룹으로 구성하였다. 참여자들이 주제와 관련하여 성역할과 그룹 내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아버지 그룹, 어머니 그룹, 혼성 그룹으로 각각 구성하여 집단 구성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적절하게 확보하였다.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해 부모 리더십의 특성을 수집하였고, 분석 방법은 집단 토론에서 녹취한 내용을 기록한 후 내용분석방법을 통해 부모 리더십의 하위 요인에 따른 문항을 정리하였다. 인터뷰 기간은 2008년 3월 6일부터 31일에 걸쳐 4개 그룹마다 각각 2회씩 토의하였으며, 1회 시간은 90분에서 120분 정도로 제한하였다.

<표 1> 포커스 그룹 참여자 현황

그룹	참여자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결혼횟수
그룹 A (혼성)	A1	남	38	대졸	회사원	9년차
	A2	여	36	대졸	회사원	9년차
	A3	남	42	고졸	개인사업	11년차
	A4	남	36	대학원졸	연구원	11년차
	A5	여	36	대졸	회사원	11년차
그룹 B (혼성)	B1	남	34	대학원수료	대학강사	9년차
	B2	여	34	대졸	피아노강사	9년차
	B3	남	37	대졸	회사원	6년차
	B4	여	38	대졸	간호사	6년차
	B5	남	37	대학원졸	전도사	10년차
	B6	여	34	대졸	교사	10년차

그룹 C (아버지)	C1	남	41	대졸	프로그래머	12년차
	C2	남	40	대졸	회사원	8년차
	C3	남	39	대졸	회사원	13년차
	C4	남	39	대졸	회사원	8년차
	C5	남	38	고졸	회사원	11년차
	C6	남	35	고졸	회사원	8년차
그룹 D (어머니)	D1	여	37	대졸	어학강사	6년차
	D2	여	37	대졸	회사원	7년차
	D3	여	38	고졸	회사원	8년차
	D4	여	34	고졸	자영업	10년차
	D5	여	43	고졸	회사원	7년차

포커스 그룹과 심층면접을 통한 자료 분석과 국내외의 부모양육행동과 관련된 척도, 리더십과 관련된 척도 등에서 고찰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110개의 예비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부모 리더십 및 코칭 전문가 4명, 부모교육 전문가 4명, 대학 교수 2명,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 2명, 유아 리더십 전문가 2명에게 총 110문항을 5점 척도(1=매우 부적절, 2=부적절, 3=보통, 4=적절, 5=매우 적절)로 반응하도록 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을 평균과 표준편차, 백분율을 산출하여 문항 평균 3.5이상이고, 표준 편차가 1이하이며, 80%이상의 전문가가 “보통”인 3점 이상으로 반응한 문항으로 80문항을 선별하였으며,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문항을 쉬운 용어로 변환, 문맥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의 수정, 개념의 명확화, 일상적인 용어 등의 지적을 통해 문항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2.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만 3세~5세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를 대상으로 서울 지역의 5개 구(강동구, 강서구, 광진구, 마포구, 서대문구)와 경기도의 2개 시(성남시, 남양주시)에 있는 유아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방문과 우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조사는 2008년 4월 10일~22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265명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225명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예비조사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225)

	구분	빈도(%)	
유아 연령	만 3세	20 (8.9)	
	만 4세	91 (40.4)	
	만 5세	114 (50.7)	
유아 성별	남아	103 (45.8)	
	여아	122 (54.2)	
부모 성별	아버지	103 (45.8)	
	어머니	122 (54.2)	
부모 연령		부	모
	30세 이하	1 (1.0)	15 (12.3)
	31세-35세	32 (31.1)	57 (46.7)
	36세-40세	53 (51.5)	41 (33.6)
	41세 이상	17 (16.5)	9 (7.4)
	전체	103 (45.8)	122 (54.2)

예비조사의 자료처리는 SPSS WIN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차적으로 80개 예비문항의 각 문항과 영역 총점 간 상관 및 신뢰도를 고려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제거한 뒤에, 요인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척도의 구인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선별된 문항을 중심으로 부모 리더십 척도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호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3. 본조사

연구 대상은 만 3세~5세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를 대상으로 서울 지역의 6개 구(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동작구, 성북구, 금천구)와 경기도의 3개의 시(수원시, 인천시, 군포시)에 있는 유아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방문과 우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조사는 2008년 4월 28일~5월 1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대상은 총 859명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760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최종문항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인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본조사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760)

	구분	빈도(%)	
유아 연령	만 3세	144 (18.9)	
	만 4세	283 (37.2)	
	만 5세	334 (43.8)	
	전체	760 (100.0)	
유아 성별	남아	382 (50.3)	
	여아	378 (49.7)	
	전체	760 (100.0)	
부모 성별	아버지	371 (48.8)	
	어머니	389 (51.2)	
	전체	760 (100.0)	
부모 연령		부	모
	30세 이하	12 (3.2)	40 (9.8)
	31세-35세	112 (30.2)	211 (53.2)
	36세-40세	185 (49.9)	113 (28.5)
	41세 이상	62 (16.7)	33 (8.5)
	전체	371 (100.0)	389 (100.0)

최종문항의 선정을 위한 자료처리는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SPSS WIN 12.0이 사용되었으며, AMOS 5.0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본 척도의 이론적 개념화가 지니는 실증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연구도구는 예비조사에서 선정된 32개 문항이 실시되었으며, 구체적인 영역별 문항수와 문항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본조사의 영역별 문항수와 문항내용

차원	영역	문항내용
요인 1 역할 지향적	부모 정체성 (4)	1. 나는 맞벌이 하면서, 남편(아내)과 아이 양육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잘 분담한다. 8. 나는 가정 안에서 아이가 편안함과 안정감을 가지게 한다. 15. 나는 직장 생활로 바빠도 남편(아내)과 아이 양육에 대하여 상의한다. 22. 나는 부모로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모델링 (4)	2. 나는 권위보다는 신뢰를 통해 아이에게 영향을 주려고 한다. 9. 나는 아이에게 기대하는 행동을 먼저 실천한다. 16. 나는 아이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한다. 23. 나는 아이에게 직장가 가정생활의 본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요인 2 관계 지향적	개인적 배려 (5)	3. 나는 퇴근 하고 집에 오면 아이의 기분이 어떠한지 살펴본다. 10. 나는 직장 생활이 바쁘다고 아이에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한다. 17. 나는 아이의 안색이 좋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본다. 24. 나는 집에서 쉬고 싶어도 아이가 관심과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 응해준다. 29. 나는 아이에게 아프거나 속상한 일이 생기면, 모든 관심을 기울인다.
	의사소통 (5)	4. 나는 아이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한다. 11. 나는 아이와 대화할 때 서로 마음이 잘 통한다. 18. 나는 아무리 바빠도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 25. 나는 아이가 이야기할 때, 따뜻하고 부드러운 시선을 보낸다 30. 나는 아이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화를 내지 않는다.
	영감적 격려 (5)	5. 나는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을 때,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12. 나는 아이가 조금 힘들어해도 자신감을 가지도록 격려한다. 19. 나는 아이가 서툴러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격려해 준다. 26. 나는 아이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칭찬해 준다. 31. 나는 아이가 나의 기대를 충족시켰을 때, 만족감을 표현한다.
요인 3 과업 지향적	목표설정 (5)	6. 나는 아이에게 하루 일과에 대하여 미리 계획하게 한다. 13. 나는 아이가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게 한다. 20. 나는 아이에게 어린이집(유치원)에 가져가야 할 준비물 등을 미리 챙기게 한다. 27. 나는 아이에게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에 대해 계획하게 한다. 32. 나는 아이가 놀이나 학습(한글, 숫자공부 등)을 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계획하게 한다.
	지적자극 (4)	7. 나는 아이에게 새로운 놀이나 학습(한글, 숫자공부 등)에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하게 한다. 14. 나는 아이에게 그림책 등에서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질문한다. 21. 나는 아이에게 기존의 방법보다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하게 한다. 28. 나는 아이가 조금 어려워해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흥미를 가지게 한다.

III. 결과 분석

1. 예비조사

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부모 리더십 척도 80문항의 각 영역총점과 문항과의 상관을 구한 결과, 상관이 .30이하이거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문항을 삭제하여 모두 8문항이 삭제되었다. 그리고 8문항이 제외된 72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통계적인 기준과 해석 가능성 차원에서 적절한 요인의 수를 7개로 결정하였다. 또한 요인의 수를 7개로 지정하고 요인구조를 산출하기 위해 사각회전인 베리맥스 회전을 실시한 후에, 각 요인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문항선정 과정을 거쳐서 추출된 문항은 모두 32문항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요인분석과정에서 연구자가 원래 제시한 3차원 9영역에서 2개의 요인(양육비전, 임파워링)이 다른 요인에 혼재되어 있는 경향을 보여서 독립된 요인보다는 혼동된 요인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 제외시켰다.

이와 같이 32문항만으로 구성된 부모 리더십 척도를 가지고 요인구조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잠정적으로 설정했던 부모 리더십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요인구조를 산출한 결과, 각각의 요인에 속한 문항들이 모두 요인부하량 .4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분산 비율은 50.96%였다(<표 5> 참조).

<표 5> 예비조사에서 선정된 32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1	2	3	4	5	6	7
영감적 격려	Q25	.853	.090	.122	.085	.051	.116
	Q24	.773	.056	.184	.159	.101	.036
	Q23	.602	.113	.126	.272	.111	.129
	Q26	.493	.157	.251	.171	.119	.280
	Q22	.446	.043	.054	.157	.129	.211
							-.067

목표 설정	Q31	.050	.834	.123	.126	.186	.023	.089
	Q34	.048	.686	-.070	.091	.138	.065	.101
	Q36	.143	.659	.136	.155	.290	.144	.096
	Q29	.072	.547	.247	.031	.024	.077	.246
	Q38	.051	.427	.067	.168	.195	.091	.058
의사 소통	Q11	.201	.015	.657	.317	.103	.152	-.034
	Q19	.107	.172	.559	.115	.087	.100	.073
	Q18	.265	-.131	.513	.299	.086	.253	.019
	Q15	.018	.082	.468	-.023	.000	.026	.054
	Q12	.232	.122	.462	.294	.158	.237	.182
개인적 배려	Q9	.373	.080	.136	.615	.200	.089	.100
	Q5	.129	.229	.120	.542	.083	.296	.091
	Q8	.311	.178	.166	.477	.183	.070	.108
	Q10	.215	.193	.434	.446	.068	.055	.184
	Q3	.162	.191	.266	.434	-.050	.061	.251
지적 자극	Q41	.143	.287	.007	.142	.801	.080	.111
	Q42	.236	.308	.177	.103	.545	.211	.256
	Q43	.144	.426	.222	-.054	.529	.159	.119
	Q40	.094	.260	.073	.186	.478	.167	.118
	Q78	.297	.055	.281	.082	.200	.626	.080
모델링	Q76	.189	.162	.240	.302	.149	.520	.264
	Q80	.124	.130	.054	.110	.105	.463	.241
	Q79	.193	.349	.303	.082	.123	.413	.273
	Q56	.181	.162	.051	.150	.182	.076	.639
	Q60	.067	.184	.022	.040	.053	.221	.517
부모 정체성	Q58	.190	.185	.331	.296	.175	.317	.427
	Q57	.236	.074	.233	.251	.202	.111	.407
고유값		3.076	3.058	2.478	2.174	2.012	1.774	1.735
분산비율(%)		9.612	9.555	7.744	6.793	6.289	5.545	5.421
누적분산비율		9.612	19.168	26.912	33.705	39.994	45.539	50.960

2) 하위영역 간의 상관분석 결과

요인분석을 통해 선정된 최종 7개의 하위 영역들 간의 상호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하위 영역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한 결과, .297~.590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각 영역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 부모 리더십이라는 하나의 구인을 구성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적 배려’는 ‘의사소통’과 .590으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영감적 격려’와도 .570으로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목표설정’은 ‘지적자극’과 .587로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고, ‘부모 정체성’은 ‘모델링’과 .577로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즉, 동일한 차원 내의 영역들 간의 상관은 .5 이상으로 더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동일한 차원에 포함되는 영역들 간의 상관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본조사

1) 신뢰도 검증

예비조사에서 선정된 32개 문항에 대하여 전체, 각 차원별, 각 영역별로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hronbach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표 6>과 같으며, 신뢰도 검증을 통해 부모 리더십 척도가 내적 일관성이 높은 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6> 부모 리더십 척도의 차원과 영역별 신뢰도 (N=760)

차원	신뢰도	영역	문항수	신뢰도
역할 지향적	.829	부모 정체성	4	.744
		모델링	4	.732
관계 지향적	.906	개인적 배려	5	.800
		의사소통	5	.793
		영감적 격려	5	.842
과업 지향적	.885	목표설정	4	.842
		지적자극	5	.836
전체				.940

2) 구인타당도 검증

예비조사에서 밝혀진 3차원 7영역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조사에서는 AMOS

5.0을 활용하여 적합도 지수를 통해 모형을 평가해 결과, <표 7>과 같이 상대적합도 지수인 NFI는 .913, TLI는 .936, CFI는 .946으로 수용할만한 적합도 지수의 기준인 .90을 넘고 있으며, 절대적합도 지수인 RMSEA도 .044로 좋은 적합도 지수로 제시되는 0.5 이하(김계수, 2007)를 나타냈다. 또한 표준카이제곱치(χ^2/df)는 5이하(김계수, 2007)이면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χ^2/df 값이 2.612로 만족할만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7>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지수

(N=760)

	χ^2	<i>df</i>	χ^2/df	<i>p</i>	NFI	TLI	CFI	RMSEA
적합도 지수	1045.735	418	2.502	.000	.913	.936	.946	.044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32문항의 3차원 7영역 구조를 실제 데이터를 통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발된 ‘부모 리더십’ 척도에 대한 구인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맞벌이 부모를 대상으로 유아기라는 특정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영향력에 대하여 부모 리더십 척도를 개발하여 부모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부모 리더십의 척도 개발은 문헌 연구, 포커스 그룹, 심층면접 그리고 설문조사와 같은 연역적·귀납적 두 가지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측정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먼저 국내외 문헌 고찰을 통해 부모 리더십 척도의 3차원과 9영역을 추출하고 개념화하였으며, 포커스 그룹과 심층면접을 통한 자료 분석과 국내외의 부모 양육행동과 관련된 척도의 문헌을 고찰한 내용을 토대로 110개의 예비 문항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110문항을 가지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여 문항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며, 그 결과 예비조사를 위한 80문항이 선정되었다.

예비조사는 서울·경기 지역에 사는 만 3세~5세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 225명을 대상으로 본 척도의 예비문항인 80문항을 조사하였으며, 일차적으로 각 문항과 영역 총점 간 상관 및 신뢰도를 고려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8문항을 제거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 리더십 척도는 3차원 7영역으로 모두 32문항으로 정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가 이론적으로 설정한 3차원 9영역 중에서 2개의 영역(양육비전, 임과워링)이 실제 부모들의 반응을 토대로 요인분석 과정을 걸친 결과 독립된 요인보다는 혼동된 요인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양육비전’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내재하는 가치관과 목표에 대한 내용이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태도와 행동을 실천하는 ‘모델링’에 양육 가치가 포함될 수 있으며, 또한 부모의 양육목표가 자녀가 설정하는 ‘목표설정’과 혼동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과워링’ 요인에 속한 문항은 ‘목표설정’과 ‘의사소통’ 요인으로 혼재되어 나타났는데, ‘임과워링’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녀와의 협력을 통해 좋은 해결책을 추구하는 내용이다. 이는 의사결정할 때 자녀와 의사를 협력하여 결정하는 내용들이 ‘의사소통’과 혼동될 수 있으며, 또한 자녀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측면의 내용들이 자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는 ‘목표설정’과 혼동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2문항만 요인으로 묶었기 때문에, 본 척도에서는 ‘임과워링’ 요인을 제외시켰다.

이와 같이 3차원 7영역의 32문항만으로 구성된 부모 리더십 척도를 가지고 요인구조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잠정적으로 설정했던 부모 리더십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요인구조를 산출한 결과, 각각의 요인에 속한 문항들이 모두 요인부하량 .4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분산 비율은 50.96%였다.

또한 본조사는 서울·경기 지역에 사는 만 3세~5세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 760명을 대상으로 먼저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전체 신뢰도는 .940로 높게 나타났다. 차원별로 신뢰도를 살펴보면, ‘역할 지향적’ .829, ‘관계 지향적’ .906, ‘과업 지향적’ .885로 높게 나타나서 부모 리더십 척도의 내적 일관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AMOS 5.0을 활용하여 32문항의 3차원 7영역의 구조를 실제 데이터를 통하여 검증한 결과 구인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본 연구는 만 3세~5세의 맞벌이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리더십의 행동 및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목적을 가지고 연구되었고, 이상의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과 가정 환경에서 부모양육행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훌륭한 리더십은 조직 상황 속에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훌륭한 리더십이 필요하며 현대의 부모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다. 리더십의 개념을 부모-자녀 관계에 적용한 ‘부모 리더십(parent leadership)’은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녀의 발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의 특성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이문용(1988), 이소희(2003), 이순명(2007), 고은영(2008), Gallbraith(2000) 등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부모 리더십은 유아기라는 발달적인 특성과 맞벌이 가족의 특성,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대상으로 다차원적인 부모 리더십의 특성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척도는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육 상황에서 효과적인 부모 행동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김은정 외, 2006). 이를 통해 부모교육과 복지, 코칭 및 상담 장면에서 실제적으로 부모의 리더십 척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부모 리더십의 척도 개발은 문헌 연구, 포커스 그룹, 심층면접 그리고 설문조사와 같은 연역적·귀납적 두 가지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측정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최근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들이 이론적인 접근방법과 경험적인 접근 방법을 혼합한 절충적 접근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박은희, 2003; 현미숙, 2004; 이호준, 2006). 이러한 접근 방법은 이론적인 구성개념의 틀에 따라서 문항을 선정하는데 경험적인 관계에서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융통성과 응용성을 가지고 있다.

참 고 문 헌

- 강기정 · 박혜성 · 계선자(2005). 맞벌이 가족 남편의 역할갈등 및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2), 5-25.
- 강형철 외(2006). 21세기 여성 리더십 모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 고은영(2007). 어머니 리더십 실천 인물 연구: 신사임당과 전해성 박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계수(2007). (New Amos 7.0)구조방정식모형 분석. 한나래출판사.
- 김은정 · 김영아 · 김유진 · 문수중(2005). 부모역할행동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7(4), 219-232.
- 김정아(1990).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제 변인에 관한 연구: 어머니와 교사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신 · 김정신(2003). 맞벌이 부부의 부모역할갈등과 심리적 복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4), 117-131.
- 문경주 · 오경자(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임상심리학회지*, 21(1), 29-43.
- 박미석 · 김경아(2005). 기혼여성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척도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은희(2003). 어머니의 자녀기대감 척도의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문용(1988). 부모의 리더십. 형설출판사.
- 이소희(2003). 부모-자녀관계와 리더십. 남서울 대학교 아동가족상담센터 특강집.
- 이소희 · 마미정(2006). 부모 리더십과 유아자녀의 개인적 지능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1(3), 93-108.
- 이순명(2007).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리더십 유형과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호준(2006). 참가자 관점 부모교육 평가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채경선(2006).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리더십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3), 51-59.
- 최정혜(2006).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 *대한가정학회지*, 44(6), 47-58.
- 함인희(2001). 정보화와 가족생활의 변화. *여성연구논총*, 15(1), 서울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 59-80.
- 현미숙(2004). 아동 부모교육 · 상담을 위한 부모역할지능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insworth, M. D. S., Bell, S. M., & Stayton, D. J.(1971). Individual differences in strange behavior

- of one-year-olds. In H. R. Schaffer(Ed.), *The origins of human social relations*. London: Academic Press.
- Ainsworth, M. D. S., Blehar, M., Waters, E., &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strange situations*. Hillsdale, N. J.: Erlbaum.
- Bandura, A. & Walter, R. H.(1963). *Social learning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 Y.: Holt, Rinehart and Winston.
- Barnes, H. L. & Olson, D. H.(1982).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in Olson, D. H, Mccubbin, H. I., Barnes, H., Larson, A., Muxen, M., & Wilson, M.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Minnesota: Univ of Minnesota.
- Bass, B. M. & Avolio, B. J.(1990). The implications of transactional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for individual, team,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Research in Organizational Change and Development* 4, 231-272.
- Bass, B. M.(1985). *Leadership and performance beyond expectations*, N. Y.: Free Press.
- Baumrind, D.(1978). Parental disciplinary patterns and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Youth and Society*, 9, 239-275.
- Bornstein, M. H.(1989). Between caretakers and their young: Two modes of interaction and their consequences for cognitive growth. In M. H. Bornstein, & J. S. Bruner(Eds.), *Interaction in human development*. Crosscurrents in contemporary psychology (pp. 197-214). Hillsdale, NJ: Erlbaum.
- Bowlby, J.(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 Y.: Basic Books.
- Conger, J. A., & Kanungo, R. N.(1988). The empowerment process: integration and practi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 471-482.
- De-Wolff, M & Van IJzendoorn, M. H.(1997). Sensitivity and attachment: A meta-analysis on parental antecedents of infa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8, 571-591.
- Dix, T. H.(1992). Parenting on behalf of the child: Empathic goals in the regulation of responsive parenting. In I. E. Sigel, a. V. McGillicuddy-DeLisi & J. J. Goodnow (Eds.),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Vol. 2, pp. 319-346). Hillsdale, N. J.: Erlbaum.
- Galbraith, K. A.(2000). *Family Leadership: Constructing and testing a theoretical model of family well-being*. The University of Utah State University. Ph.D.
- Galbraith, Kevin A. & Schvaneveldt, J. D.(2005). Family Leadership Styles and Family Well-Being.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33(3), 220-239.
- Graen, G. & Uhl-Bien, M.(1995). Relationship-based approach to leadership: Development of leader-member exchange(LMX) theory of leadership over 25 years: applying a multi-level multi-domain perspective. *Leadership Quarterly*, 6(2), 219-247.
- Hawkins, A. J. & Roberts, T.(1992). Designing a primary intervention to help deal-earner couples share housework and child care. *Family Relations*, 41, 169-177.

- Hogan, M. J.(1993). Family futures: Possibilities, preferences and probabilities. *Marriage and Family review*, 18(3-4), 255-262.
- Holden, G. W. & Ritchie, K. L.(1988). child Rearing and the Dialectics of Parental Intelligence. In J. Valsiner (Ed.), *Parental Cognition and Adult-Child Interaction*. 30-59. N. J.: Ablex.
- Johnson, M. E.(2000).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leadership self-efficacy scale.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Doctor of Philosophy.
- Levine, R. A.(1974). Parential goals: A cross-cultural view. *Teachers College Record*, 76, 226-239.
- Main, M.(1983). Exploration, play and level of cognitive functioning as related to secur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Infant Behavior Development*, 6, 167-174.
- Manz, C. C. & Sims Jr. H. P.(1991). Super leadership: Beyond the Myth of Heroic Leadership. Organizational Dynamics, Spring.
- Matas, L., Arend, R. A., & Sroufe, L. A.(1978). Continuity of adaptation in the second year: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later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49, 547-556.
- McClelland, D. C.(1975). Power: The inner experience. N. Y: Irvington.
- Popper, M. & Mayseless, O.(2002). Back to Basics: applying a parenting perspective to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he Leadership Quarterly*, 14, 41-65.
- Rafferty, Alannah E. & Griffin, Mark A.(2004). Dimension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Conceptual and empirical extensions. *The Leadership Quarterly*, 15, 329-354.
- Satir, B.(1983). Conjoint family therapy(3rd. ed.). Palo alto, California: Science of Behavior Books, Inc.
- Sims, B. J.(1997). Servanthood: Leadership for the third millennium. Boston: Cowley Publications.
- Stoppard, M.(1991). Test your child. London: Dorling Kindersley.
- Stryker, S. & Serpe, R.(1982). commitment, identity salience, and role behavior. In Ickes. W. & Knolws, e. (Eds.). Personality, roles and social behavior. (pp. 199-218). N. Y.: Springer-Verlag.
- Webster-Stratton, C.(1988).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child deviance: roles of parent and child behavior and parent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909-915.
- Windle, M. & Dumenci, L.(1997). Parental and occupational stress as predictors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Dual-Income couple: A Multievel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3), 625-634.
- Yukl, G.(1999). An evaluative essay on current conceptions of effective leadership.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8, 33-48.

Abstract

Study on Parent Leadership Scale Development

Youn, Ji-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Parent Leadership Scale(PLS) for dual-earner couples for preschoolers, which can be provided more useful information of parenting behaviors.

This study constituted PLS with 3 dimensions and 9 variables, based on studying the extensive literatures about leadership and parenting behavior. The preliminary 110 items of PLS was develop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 in-depth interview, and study, and the preliminary 80 items was selected through the content validity for experts.

As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PLS was developed as 32 items and 3 dimensions and 7 variables. 2 variables of 'parenting vision' and 'empowering' were derived from the conceptual and measurement model.

The reliability of the inventory was Cronbach α =.940. Considering the each subordinate dimension, 'role oriented' dimension was Cronbach α =.829, 'relation oriented' dimension was Cronbach α =.906, and 'task oriented' dimension was Cronbach α =.885. A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and the result proved that the adjusted PLS structure of 3 dimensions and 9 variables of 32 items was fitted well.

Key Words : parent leadership, dual-earner couples, leadership

* The Training Schools for the Daycare Teachers, Kyonggi University